

# '광주G-패스'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

어린이 무료·청소년 반값 이용  
노인 50%·저소득층 64% 환급  
성인 K-패스 연계 추가환급도  
월 15회 이상 이용면 다음달 환급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대 빈틈없이 할인·환급해주는 '광주G-패스(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광주지역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어르신과 저소득층은 기존 K-패스 환급과 광주G-패스 추가할인을 더해 각각

50%, 64% 할인 혜택을 받는다. 광주시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으로 할인하고, K-패스와 연계해 청년 30%, 성인 20%, 어르신 50%, 저소득 64%를 환급한다.

특히 어린이 무료·청소년 반값 할인, 어르신 50%, 저소득 64% 환급은 '광주G-패스'만의 특징이다.

어린이(6-12세)와 청소년(13-18세)은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생년월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어린이/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내년부터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즉시 어린이는 100%, 청소년은 50% 할인받는다.

다만 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등 인접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버스는 광주 시내에서 운행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어린이·청소년 할인은 1인 1카드 사용에 한해 적용된다.

1개의 카드로 여러 명이 탑승할 경우 카드 소지자 1명만 할인받고, 교통카드가 없는 나머지 인원은 할인전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K-패스와 연계해 추가 환급된다.

성인은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https://korea-pass.kr>)에 회원 가입하고,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에 돌려받는다.

환급률은 청년(19-39세) 30%, 일반(40-64세) 20%, 어르신(65세 이상) 50%,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64%다. K-패스에 비해 청년은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환급률을 20%에서 50%로, 저소득층은 53%에서 64%로 지원을 강화했다.

환급 방법이 간단하다.

K-패스를 사용 중인 광주시민은 기존 대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자동으로 광주G-패스 추가 환급이 적용된다.

김석용 통합공항교통국장은 "광주G-패스는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K-패스와 연계해 추진한다"며 "내년 광주G-패스 시행을 계기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로 전환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광주시, 2025년 상반기 국·과장급 전보인사 단행

정기 인사 20일 앞두고 신속 추진  
전문성 바탕 간부 적재적소 배치

광주시는 2025년 1월 1일자 국·과장급 4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9일 단행했다.

▶관련인사 17명

광주시는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조직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유래없이 신속하게 추진했다. 퇴직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흔들림없는 시정 운영의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미래산업 육성 △돌봄체계 구축 △도시공간 조성 등 시민 행복과 직결된 분야에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간부를 전략적으로 배치, 광주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장급 인사에서는 최태조 미래차산업과장을 인공지능산업실장으로, 신재욱 공간혁신과장을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승진 배치,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이어간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미래차산업과장을 역임하며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와 산업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대표도시로 도약시킬 책임자로 평가받는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도시계획과장, 공간혁신과장 등 건축분야 주요보직

을 두루 거친 실무형 관리자로 조직을 안정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향후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초석을 다지고, 대·자·보 중심도시 광주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년국장에는 광주시로 복귀한 김기숙 광산구 부구청장이 맡는다. '글로벌 대학 30 프로젝트'를 재정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혁신과 청년정책 분야의 실질적 지원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두 축으로 미래차산업도시로의 전환을 이끌어온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인재교육원장으로, 김석용 통합공항교통국장은 광산구 부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상울 인사정책관은 "이번 정기인사는 더욱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의 관행과 익숙함에서 벗어나 인사시기를 앞당기는 등 새로운 변화를 줬다"며 "개인별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치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기존 4급 이상, 5급, 6급 이하로 나눠 순차적으로 시행하던 정기인사 관행을 과감히 폐지하고, 12월 30일까지 상반기 정기인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강 시장, 만학도와 '광주공동체 네번째 이야기'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1층 북카페 '소년이 온다'에서 열린 '함께 나누는 광주공동체 네번째 이야기'에서 만학 어

르신들과 문해교육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도민 만족도 99%'

성과보고회... 3년만에 500회 운행  
타 광역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

전남도가 사회서비스 취약 지역 주민을 위해 추진한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운영 3년 만에 500회 운행을 돌파, 99%의 만족도를 기록하면서 타 광역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9일 전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취약 지역 거주 도민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행복버스 현장 운영을 적극 지원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와 협업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

공자 표창, 성과보고,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21년 8월 첫 운행을 시작한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운영 3년 만인 올해 7월 500번째 마을 방문을 달성했으며, 키오스크 교육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해 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민 2만1000여 명이 이용, 만족도가 99%에 달하며 재방문을 바라는 경우도 96%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현장을 위해 연간 1400여 명의 재능기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출연기관·민간단체·학교 등 유관기관과 50여 차례 협업을 진행하는 등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주민 대부분이 고품의

어르신인 시골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중한 추억을 전했다.

이호범 전남도사회복지과장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중 전남행복버스의 운영 횟수가 주 4회로 가장 많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종류도 다양하다"며 "행복버스가 달리는 가장 큰 힘은 자원봉사자로부터 나온다. 현장 운영에 애써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쉬지 않고 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국내 다수 주요 언론사로부터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가치로 조명을 받으며, 타 광역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이 잇따르는 등 마을 단위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동체 강화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오지현 기자

## 전남도, 문화관광해설사 경진대회 성료

우수 해설사례 공유·도시사 표창  
"숨은 이야기 발굴... 관광 매력 더해"

전남도는 지역 관광의 첨병으로서 숨은 이야기를 발굴해 관광객에게 전남 여행의 재미를 더해주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18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남의 문화관광자원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스토리를 발굴하고 우수 해설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22개 시군에서 250여 문화관광해설사가 참석했다.

전남지역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단체 2팀(목포·구례)과 개인 7명(담양·장흥·영암·무안·영광·장성·진도)으로 참가해 각 지역 문화유적과 관광자원 해설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눴다.

주요 해설주제는 갯바위, 느티나무, 통제영, 노벨 문학도시, 월출산, 초의선생

탄생지, 법성포, 슬픔, 운림산방 등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에 앞서 지역 문화관광 해설 발전에 기여한 7명에게는 도시사 표창도 수여됐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2024년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3위를 달성하고, 소설이아어워드 지역관광 부문 인스타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올해 전남 관광이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다"며 "이 모든 성과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올해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부문 표창에서 해설사와 공무원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전국 해설사 스토리텔링 대회에서도 전남 대표 해설사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활약을 펼쳤다.

오지현 기자

## 전남개발공사 '북돋움 챌린지' 성료

전자도서관 활용 다독왕 선발  
대출건수 전년비 141%증가 성과

전남개발공사가 주최한 '북(Book)돋움 챌린지'가 19일 시상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챌린지는 전남개발공사 전자도서관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됐으며, 전자도서관을 활용해 도서 대출과 서평 활동으로 다독왕을 선발하는 '다독왕 대회'와

전자도서관의 신규 명칭 공모를 추진해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올해는 완도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으로 참여 학생도 증가해 작년 2081권이었던 대출 권수도 올해 5017권으로 무려 141% 증가하는 등 전자도서관 활용도가 대폭 상승했다.

다독왕 대회 부문에서는 1등상 강민서(하의초 5학년)·김서준(청산초 3학년)·신지현(금천초 6학년) 등 11명, 전자도서관 신규 명칭 공모 부문에서는 2건이 각

각 선정돼 총 13명의 초·중·고·대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 이후에는 원유순 아동문학작가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을 주제로 학생들과 진로와 창의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전남개발공사장충모 사장은 "전자도서관이 전남 섬 지역의 아이들에게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창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자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보급해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